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은
www.ipcs21.com에서
항상 신속한 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돌, 백일/ 회갑, 고희연/ 각종 모임행사
용정웨딩홀 · 뷔페
Tel: 031) 533-4466 Fax: 031) 536-4466

【주간】 1990년 1월 15일 창간 ☎ 031-542-1506~7 Pocheon sinmun 제358호 2006년 11월10일 금요일

특별인터뷰 이천수 대진대학교 총장

'경쟁력 있는 글로벌 리더 육성'

"대진대학교에서 幸福한 未來 설계할 수 있다"

1991년 설립인가를 받아 1992년 3월에 개교하여 현재 5개 단과대학 41개 학과, 50개 전공, 7천351명이 재학중이며 1995년 대학원 신설인가를 받아 5개 대학원 473명이 수학중인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는 학교면적 63만평에 34개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1997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사범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타지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의 여러 대학과 교류하고 있으며 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06년1월23일 부임한 이천수 총장은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매일처럼 세계화와 정보화, 개혁과 개방이라는 거센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대진대학교는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앞서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특성화 사업으로 특성화의 목표는 '산학일체형 중국전문인력 양성'으로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황에서 중국전문인력을 키워내는 일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진대학교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국외에 중국캠퍼스를 설립하였고 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업들과 긴밀한 산학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쑤저우와 하얼빈, 두 곳의 중국캠퍼스를 통해 중국전문인재를 키우고자 한다. 또한 이 두 개의 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중국 칭따오에 한중산학협력센터를 개설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진대학교 이천수 총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1월23일 취임이후 대진대학교 경영소감은

2007년도에 15주년이 되는 대진대학교는 시설이나 여건이 다른 대학에 비해 월등히 좋다. 경기북부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서 구성원들이 열성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또한 건실한 법인으로 대학경영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 노력해 나간다면 명문대학으로서 입지를 견고하게 구축할 것이다. 특히 지리적 여건과 포천시의 적극적 지원과 구성원들의 잘 해야겠다는 자신감은 분명히 명문사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진대학교 설립목적은

대진대학교의 건학정신은 대순진리회의 종지인 해원상생을 바탕으로 성실(誠實), 경건(敬虔), 신념(信念)의 정신으로 학문과 기술을 익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나아가 인의를 갖춘 참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교육성과는

1992년3월 개교한 대진대학교는 중국캠퍼스 설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선정, 산학일체형 중국전문인재 양성 특성화 사업 선정, 과학영재교육원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캠퍼스는 2005년 쑤저우와 하얼빈에 국제협력대학을 설치하고 쑤저우대학교(105년의 역사. 아름다운 캠퍼스 4대 명문)와 하얼빈사범대학(중국 10대 사범대학, 중국어교육의 요람)에 기본과정으로 1학기동안 수학이 가능하며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이수후 추가 1학기 수학가능하고 복수학위과정은 기본, 심화과정 1년 이수후 1년 추가 수학하여 양교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포천시,대진대가 667억원을 투자하여 대진대 교내에 3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201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5만6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5천100억원의 세수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특성화 사업인 '산학일체형 중국전문인재 양성'은 교육부 지원자금, 대응 자금을 합해 약 40억원의 사업을 3년째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신입생을 모집한 과학영재교육원은 서울 , 경기북부의 5%이내 우수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교수진들이 강의에 나서고 있다.

◆대진대학교와 포천시와의 협력사업이 있다면

현재 추진중인 대진테크노파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대진대학교 진입로가 포천시 소유로 되어 있어 포천시와 공동으로 문화의 거리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시가 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대진대학교 교수들을 정책위원으로 활용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따라서 포천시와 대진대학교와의 관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훌륭하다고 본다.

◆중국캠퍼스 운영현황과 비전은

대진대학교 학생은 중국캠퍼스에서 유학하면서 중국어를 비롯한 중국 문화 및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능력을 중국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체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산학현장 체험실습 등의 중국 특성화사업을 통해서 기업실무 및 중간관리자 리더십 능력을 갖춘 산학일체형 중국전문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대진대학교의 중국특성화 비전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부로부터 총 73억6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진대학교 이천수 총장은 교육부 대학특성화 사업인 '산학일체형 중국전문인재 양성'은 교육부 지원자금, 대응 자금을 합해 약 40억원의 사업을 3년째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영재교육원의 운영성과 및 비전은

과학영재교육원은 2005학년도 제1회 신입생을 모집해 소수정예의 집중화 교육은 물론 과학영재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위해 학교차원에서 별도로 영재교육사업비를 지원하여 학생 개개인이 실험실습을 하고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대진대학교 교수진이 과학영재교육원 강사진으로 포진하여 과학영재들이 교수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창의적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무한한 창의력을 계발하고 길러줄 수 있는 선행학습을 시행하고 있다.

◆포천시와 지역주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사항은

포천시가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이 있어 놀랐다. 앞으로 교육부문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인재육성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민들께서는 대진대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하기를 원한다.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물론 운동장, 축구장, 실내체육관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교육철학과 학교경영방침은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있다. 학교경영방침은 교수들이나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나가고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신문에게 바라고 싶은 사항은

한 번도 빠짐없이 포천신문을 정독하고 있다. 지역소식을 잘 알려주고 지역현안을 분석하고 대학과 지역간의 협력관계도 잘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라고 싶은 사항은 포천의 심각한 문제인 교통문제 해결이다. 포천신문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서 포천의 교통문제를 말끔히 해소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⑫
포천시 각종 축제 개선점 많아

10월 편중 타 지역축제와 중복 관광객 減少

홍보부족 중복 … 계절별 분산개최 브랜드화 절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자기 지역을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특산물이나 지형, 기후 등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특성화되지 못하고 비슷비슷한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10월에 집중된 포천시 지역축제는 시민의 날 행사나 각 읍면동 체육행사 등과 중복해 개최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市가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 10월 포천시에서 개최된 축제는 제10회 산정호수 명성산억새꽃 축제를 비롯해 제2회 대한민국 술 축제, 2006 개성인삼축제, 산사랑 산지기 페스티벌, 운악산단풍 축제 등이다. 이들 축제에 소요된 경비만 하더라도 시예산 3억5천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12월에 개최되는 제3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경비 8천만원을 합산하면 4억3천만원이 소요된다. 게다가 시민의 날 행사와 각 읍면동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비용 등을 합하면 10월중 축제와 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만 하더라도 1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나 포천시 관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제2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종천 시의원의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시정질문에 대해 박윤국 포천시장은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에 50만명, 대한민국 술 축제에 7만명, 개성인삼축제에 13만명,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에 20만명 등 5개 축제에 9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174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 박 시장은 이같은 파급효과 산출근거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시기 2일 동안을 임시주차장 17개소에 자가용 2천대에 1만명, 관광버스 400여대에 1만6천여명, 체류시간 4시간 등으로 계산했다. 또 개성임삼축제 역시 차량주차대수 810대와 동승자 4명을 행사장에 30분 체류한 것으로 추정해 1일 5만2천명 등 2일 동안 10만4천명과 대중교통이용자 2만6천명으로 13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은 다른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 추정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1인당 국내여행 비용 1만9천330원(한국리서치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상)을 추정해 총관광객 90만명을 계산하면 174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포천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들은 10월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시민의 날 기념식이나 농민의 날 등 10월은 그야말로 축제와 행사의 홍수속에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처럼 많은 축제와 행사가 10월에 집중되면서 제대로 된 축제, 브랜드화되어 외부 관광객이 찾을만한 축제는 그리 많지 않다. 포천시가 밝힌 것과는 반대로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 상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가들은 한가하기만 하다. 상인들은 각종 축제를 개최하면서 기대했던 축제효과는 거의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2회 대한민국 술 축제가 개최되었던 백운계곡 모 상인은 "술 축제를 찾는 사람들은 기념식이 끝나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상인은 "포천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많지만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미약하다"면서 "축제마다 각기 특성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축제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해 특성화 되지 못했을 뿐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과도 다른점이 없어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외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市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준비를 했다"면서 "축제를 시행하면 지역상인들이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각종 인터넷 매체와 KTX에 동영상 홍보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면서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홍보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천시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당초 의도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성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축제라면 포천지역까지 방문할 관광객은 없을 것이다. 또 10월에 집중된 축제를 계절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계절별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무리 훌륭한 축제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없다면 축제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브랜드화된 테마에 계절에 맞는 축제,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포천시 축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